

전주대 박물관에서 역사유물도 보고 역사 체험도 해요

도내 청소년 대상 역사·인문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진행

우리나라 전통 활 국궁을 쏘아 보고 전통문양으로 예코백도 만들어본다. 전주대학교 박물관(관장 홍성덕)에서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역사 수업의 모습이다. 새로운 체험으로 진행되는 수업인 만큼 역사를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도내 청소년 200여 명이 전주대를 방문하여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역사를 체험했다. 지난 17일에도 만성초등학교 50여 명의 학생들이 전주대 박물관을 찾았다. 이들은 먼저 전주대 박물관에서 우리나라 역사기록과 전통유물을 관람했다. 이어서 전통민화를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게 캐릭터로 재탄생시킨 '어변성룡도(魚變成龍圖)'를 예코백에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에 참여한 학생은 "평소에 학교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체험까지 할 수 있어서 재밌었고 시간은 잘 몰랐다"라고 말하며 즐거워했다. 전주대 역사·인문 체험학습은 차량 이동부터 교육·실습 체험까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이렇게 전액 무료로 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이유는 전주대 박물관이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박물관 지원사업 중에 총 4개 분야 사업에 선정되어 그 일환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만성초등학교 손수강 교사(25)는 "전액 무료로 부담 없이 체험학습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역사 교



전주대학교 박물관 관장 홍성덕)에서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역사 수업의 모습이다. 새로운 체험으로 진행되는 수업인 만큼 역사를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육 전에 역사와 관련된 체험으로 선행학습을 할 수 있어서 학습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프로그램을 호평했다.

공교육 현장에서도 이미 체험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학급당 1명의 교사가 교육하는 초등학교에서는 효과적인 체험활동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전주대 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은 전공 교수, 학예사 등 역사 전문가들이 교

육에 참여하여 학생 개개인별로 밀착지도 할 수 있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주대는 11월까지 '손으로 그리는 마음' 등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역사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 전주대학교 박물관 (063-220-2159, 311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기자



정읍시 드림스타트, '동병하치' 프로그램 운영

정읍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17일 보건소 한방진료실에서 드림스타트 아동 20여 명을 대상으로 동병하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프로그램은 (취합소아 후원)으로 진행됐다. '동병하치' 프로그램은 (취합소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비염과 같은 가을, 겨울의 호흡기 질환을 여름에 미리 예방하는 한방프로그램이다. 1년 중 여름의 기온이 가장 왕성한 초복과 중복, 말복 전후로 3회 정도 실시된다. (취합소아)는 프로그램 일환으로 당일 아동들에게 삼복 찜을 부착해주고 생기차를 제공했다.

삼복찜은 감증, 백개자, 사인 등의 약재가 함유된 하이드로젤 밴드를 열자리에 붙여 아동의 양기를 보충하는 치료이다. 또 생기차는 한방 음료로, 더위에 지친 아동들의 기력을 충전시키고 진액을 보충해 주는데 효과적이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아동들의 겨울철 호흡기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시 송동면, 찾아가는 복지소식-day 호평

남원시 송동면은 삼복더위지만 어려운 이웃을 찾아 발굴하는 복지서비스는 계속된다.는 방침 아래 지난 17일 초복의 더위에도 송기리 부동마을을 찾아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복지소식-day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소식-day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독거노인들과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마을 주민 등 약 20여명이 참여했다.

그동안 급제면 맞춤형 복지팀과 송동면 사회복지담당자가 팀을 이뤄 주민간담회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 특히 비수급 저소득 주민 중 노인, 지적장애인,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족 등 복합·다양한 문제가 있어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을 발굴했으며, 복지팀은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5세대를 직접 방문해 상담하고 맞춤형복지급여, 긴급지원, 공동모금회 이웃돕기 등 지원 가능 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이선재 송동면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구심체의 협력과 복지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등 적극적인 복지를 실현해 나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서, 민원인을 위한 '스마트폰 충전기' 설치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는 18일 민원 부서를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폰 무료 충전기를 설치해 호평을 받고 있다.

스마트폰 무료 충전기 설치에 스마트폰 보급과 이용률 증가로 수시로 충전을 위해 휴대용 배터리 충전기, 보조배터리를 소지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용의 편리성과 민원인 동선을 고려해 민원실, 민원인 센터(보릿밭 카페), 교통조사 민원인대기실에 각각 설치했다.

또한 스마트폰 무료 충전기에는 ▲가정 폭력, 아동(노인)학대 신고는 112, 상담은 1366 ▲불법촬영은 중대범죄입니다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고창 우리함께 만들어가요 등 범죄예방 홍보문구를 함께 부착하여 관심유도와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 동충동, 노인사회활동참여자 안전 및 예방교육 실시

남원시 동충동(동장 조환이)은 18일 동 회의실에서 노인 사회활동 참여자 40명을 대상으로 폭염대비 안전교육과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년기 신체·정신건강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업 참여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사업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폭염대응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남원 YWCA 가정폭력에

방 강사 박정환씨의 'STOP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가한 동충동 주민 박모씨는 "일을 통해 소득은 물론 건강증진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실제 생활에 유용한 내용을 많이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 계남면 어르신, 삼계탕 나눔 행사

장수군 계남면은 지난 17일 초복을 맞아 관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복달음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계남면은 폭염 속에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계신 노인들의 원기 회복을 위해 50여명의 노인들에게 닭백숙과 약주를 대접해 훈훈한 정서를 보였다.

한편 계남면은 10여년 넘게 매년 부남이면 지역의 노인들에게 복달음 잔치를 마련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새마을운동임실군지회 '2018 읍면 핵심리더 한마음 수련회'

새마을운동임실군지회(회장 김중수)는 18일 성수면 성수산 일원에서 새마을 가족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읍·면 핵심리더 한마음수련회를 열었다.

이번 수련회는 전·현직 새마을지도자 상호간 정보교환과 사기진작, 화합 도모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새마을조직의 역량 결집 및 공동체운동 실현 재정립을 통해 '해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 만들기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중수 지회장은 "이번 행사로 새마을조직이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근면·자조·협동·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명사회 건설에 새마을가족이 앞장서 나가자"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